

동서대, 대학혁신지원 사업 선정

3년간 매년 22억 원 지원 받아



▶ 동서대학교 뉴미디어관 전경

동서대학교가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II유형)에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동서대를 비롯해 전국 4년제 대학 12개 대학이 이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5월 2일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 대학의 탄탄한 역량과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눈으로 보여준 것이 됐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기반을 둔 대학 혁신계획을 평가한 뒤 예산을 지원해 대학발전을 돕는 사업이다. 각 대학의 발전전략에 따른 혁신사업을 추진하여 대학의 기본역량을 제고하고 국가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미래형 혁신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기존의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온 다양한 목적형 사업을 대학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 전면 개선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총 409억원을 대학(278억원)과 전문대학(130억원)에 지원한다. 대학은 1개교당 평균 23억원, 전문대학은 1개교당 평균 13억

원을 받는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서 동서대는 매년 22억~23억 원씩 3년간, 총 66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러한 지원금은 대학의 발전을 위해 쓰인다. 이로써 가속이 붙은 우리 대학의 발전 가능성이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이번 결과로 우리 대학은 지난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실추되었던 명예를 완전히 회복했다.

지난해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은 모두 66곳(대학 30곳, 전문대 36곳)이다. 이 중 22곳(대학 12곳, 전문대 10곳)이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뽑혔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학·전문대학들이 제출한 '대학혁신지원사업계획'을 토대로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선정한 것이다.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역량강화대학들은 정원감축 권고 대상이다. 따라서 대학혁신지원사업 역량 강화형 선정평가 결과는 모두의 관심을 모았다.

선정 대학은 ▲덕성여대, 한경대(수도

권) ▲가톨릭광동대, 연세대 원주(대구·경북·강원권) ▲건양대, 목원대, 유원대(충청권) ▲순천대, 우석대, 조선대(호남·제주권) ▲동서대, 한국해양대(부산·울산·경남권) 등이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4년제 대학 중에서는 동서대와 한국해양대 등 2곳만 선정됐다. 우리 대학을 포함한 이들 대학은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대신 정원 감축과 특성화 교육 발전 등을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 대상 선정 평가에서는 연구계, 산업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상파·제적 등을 엄격히 적용했다"며 "평가위원 가운데 50% 이상을 외부 공모로 선발해 평가과정 공정성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에서 동서대는 '달라틴 교육체계 고도화' '개방형 교육지원체계 구축' '고밀도 경험 학습체계 구축' '데이터 기반 평가관리체계 구축' 등 7개 특성화 추진전략을 통한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혁신모델을 제안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동서대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미래형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인 '동서 비전 2030'을 수립하고, 교육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 혁신분부를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대학교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우리 대학은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장재국 총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동서대학교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미래형 대학으로 체제를 전환해 명실상부한 신(新)명문 대학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개편했다. POINT사업이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변경됐고 목적성 사업(ACE+, CK, PRIME, CORE, WE-UP)은 일반재정지원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개편됐다. LINK+사업과 BK21+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시행된다.

윤다는 기자
yoondasol73@gmail.com

교육부 주관 평생교육지원 사업 선정

올해 8억여 원 지원 받아 4개 학과 운영



▶ 웃음을 짓고 환한 웃음을 짓고 있는 학생들

동서대가 만학도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의 쾌거를 이뤄내고 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 평생교육 체제 지원사업 대상에 동서대를 비롯해 전국 30개 대학(전문대 7곳 포함)이 선정됐다고 4월 28일 발표했다. 선정대학 수는 일반대가 23개교로 전년대비 2개교 증가했고, 전문대학은 7개교로 올해부터 지원받게 된다.

이 사업은 선 취업 후 학습 활성화와 국민 고등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이 성인 학습자 친화적인 학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금은 총 23억원으로 대학별 평생교육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우리 대학은 올해 8억 2600만원(4개 학과 120명)을 지원받는다. 단과대학형으로 선정된 동서대 미래커리어 대학은 2018년에 9억원을 지원받은 데 이어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약 33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동서대의 평생교육 특성화 대학인 미래커리어 대학에는 ICT 융합공학부(소프트웨어 트랙, 메가트로닉스 트랙), 사회안전학부(경찰 트랙, 탐정 트랙), 실버산업계열(실버컨설팅학과, 시니어 운동 처방학과)이 개설된다. 교육부는 선정대학이 평생교육체제 안착과 활성화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5월부터 착수 컨설팅을 실시하고, 6월에 사업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선정대학은 상호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홍보, K-MOOC 공동 교과목 개발, 우수 사례 발굴 확산 등 평생교육체제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평생교육 학위과정은 마이스터고·특성화고를 졸업하는 등 대학유형별 자격에 맞는 성인 학습자가 지원할 수 있다. 수는 점수대신 맞춤형 전형으로 지원한다.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올해부터는 1년 단위 사업에서 4년(2년+2년)짜리 사업으로 바뀐다. 올해 선정된 대학들은 최대 2022년까지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학위과정은 이 보충 4년간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성과를 관리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기 위해서다.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해 사업비를 가감 배분하고, 2년 차 중간평가 때 성과가 미흡해 평생교육 체제 구축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대학은 차기 사업에서 제외한다.

교육부는 "선 취업 후 학습이 강조되는 현시점에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는 시대적 요구"라며 "성인 학습자가 원하는 시기에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현석 미래커리어대학 학장은 "동서대 미래커리어대학은 시민들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후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다는 기자
yoondasol73@gmail.com

동서 아너소사이어티 설명회 개최

동서대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 집중하여 설명회를 듣고 있는 학생들

지난 5월 15일 뉴미디어관 4층, 406호에서 동서 아너소사이어티 11기 지원자 모집을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는 미국 연수 영상을 시작으로 아너소사이어티의 교육과정, 모집 일정, 특전, 필수 활동, 글로벌 활동,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동서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는 전공지식 외에 창의적 사고의 힘, 의사소통의 힘, 사람과 봉사의 힘 등 3가지 파워를 갖춘 국제적 인재를 길러내는, 동서대의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이 프

로그램은 의사소통 능력(한국어 및 영어)을 함양시키고 문제해결 능력 및 창의력을 함양시키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가지고 있다. 또한 사람과 봉사 정신을 기르고 직무 분석 능력을 키우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목표 중 하나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미국 해외연수, 글로벌 이슈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아너소사이어티의 교육 내용은 ▲미국 소재 대학교 한 학기 학점인정 연수 ▲영어 집중 교육 ▲프레젠테이션 및 토론 기

법 ▲글로벌 리더십 배양 등이다.

동서대학교의 2학년 학생 중 평균 평점이 4.0 1회 이상인 학생, 인문·사회 계열(보건행정학과 포함) 공인 TOEIC 또는 동서 CBT 700점 이상 공학·이학·예체능 계열(디지털콘텐츠학부 포함) 공인 TOEIC 또는 동서 CBT 600점 이상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SAP와도 동시 지원이 가능하지만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하나를 선택해 갈 수 있다. 연수 동안 학생들은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문법 등 영어 전반에 대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현지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영어권 국가의 생활과 문화도 직접 체험한다. 특히 대학 당국은 연수에 참여한 학생 전원에 현지 교육비, 항공료, 체재비 등 연수 경비를 모두 지원해준다. 모집 방법은 1차 서류전형을 거쳐 2차 면접으로 진행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동서 아너소사이어티 9기 강창호 학생(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은 "미국대학교를 교환학생으로 가는 기회는 다른 프로그램보다 미국에 대해 빠르게 배우고 적용할 수 있고 현지의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접할 수 있다. 또한 졸업 이후에도 보다 넓은 취업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취업 준비가 가능하다"는 말을 전했다.

동서 아너소사이어티의 윤대형 책임교수(보건의료계열 작업치료학과)는 "동서아너소사이어티는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전공지식과 4 Powers(창조적 사고의 힘, 의사소통의 힘, 사람과 봉사의 힘, 직무분석의 힘)를 겸비한 인재를 비전으로 교육하고 있다. 각 학부와 전공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동서 아너소사이어티로 뽑혀 어학실력 뿐 아니라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는 힘이 생겨난 우리 대학의 인재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바이다.

조은빛 수습기자
윤다는 기자
yoondasol73@gmail.com



▶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동서대학교 사회교육원이 '교육 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동서대 사회교육원은 '세프와 함께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부·울·경 대학 중에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5월 9일 2019년 1차 교육 기부 진로체험 인증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부터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을 발굴하고, 진로체험의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6년부터 교육 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동서대 사회교육원의 '세프와 함께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지난해 부산시 내 20개 중학교에서 7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

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 올해는 5월부터 교육 기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인증기관은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받은 뒤 3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 4회 이상 무료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남일재 사회교육원장은 "동서대 사회교육원은 지역 내 최고 시설과 프로그램, 강사진을 갖춘 평생교육 기관이라고 자부한다."며 "이번 진로체험기관 인증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 부산시민과 학생들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다는 기자
yoondasol73@gmail.com

2019 민석축제와 체육대회 잇따라 열려 설렘과 기대감 속에 시작



▶축제를 즐기는 학생들의 모습



▶축제 사상 최대의 불꽃놀이 모습



▶경기에 이겨 기뻐하는 학생들의 모습



▶워터페스티벌을 즐기는 학생들의 모습

지난 5월 2일 동서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민석축제와 체육대회가 연달아 개최됐다. 10월에 민석축제가 열렸던 작년과 달리 체육대회가 함께 연달아 진행되면서 중간고사를 끝낸 학생들이 맘 편히 마음껏 축제와 체육대회를 즐길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각 학부와 동아리가 부스로 운영하는 동서 교류제가 열려 말 그대로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각 부스마다 다양한 테마로 각종 콘텐츠와 먹거리 등이 준비되어 학생들과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푸드트럭과 동서대학교 동아리 예소리의 사물놀이, MIDMIX의 노래, BLACK의 댄스 공연, 도전 백인 백곡, 경호 시범단 등 다채로운 행사들로 학생들의 눈과 귀를 모두 사로잡았다.

한창 축제가 무르익어갈 때쯤에는 10cm와 메킷레인의 가수들이 공연을 펼치면서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날 피날레로 우리대학 축제 사상 최대의 불꽃놀이가 장식하면서 2019 민석축제가 막을 내렸다.

다음 날인 5월 3일에 열린 체육대회에서는 각 학부가 각종 경기를 겨루었다. 농구,

족구, 축구, 왕피구, 씨름, 계주, 전락줄다리기, 미션계주 등 총 8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되었다. 중간에는 BLACK의 춤 공연이 진행되었고 뒤이어 'BLUE BOMB' 워터페스티벌이 열려 체육대회의 열기를 한껏 더 높여주었다. 운동장에 여러 대의 샴수차를 배치하고 중앙 부스에는 음악 DJ가 각종 신나는 음악을 틀어줌으로써 워터페스티벌의 재미가 두 배로 올라갔다. 경품 추첨을 끝으로 이날 종합 우승은 레포츠과학부, 종합 준우승은 건축토목공학부가 차지하면서 체육대회의 막을 내렸다.

민석축제와 체육대회에 모두 참여한 한

학생은 "한 해가 지나갈수록 민석축제는 물론 체육대회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 같다. 동서대학교는 물론 각 학부와 총학생회의 수고 덕분에 매년 더 좋아진다고 생각한다. 다음 축제와 체육대회도 기대되는 바이다."라며 만족감을 표하였다.

총학생회는 "학생 여러분들이 안전에 유의해 주시는 덕분에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 더욱 알차고 즐거운 행사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발로 뛰는 총학생회가 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효진 기자
pahyork@gmail.com

광고PR전공 광고 분야 최우수 인재 양성에 힘 집중하겠다



▶동서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님들의 모습

동서대학교 광고홍보학과가 '2018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에서 광고 분야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란 산업계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데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기업체 임직원 등이 평가하는 사업이다. 이 평가는 교육부의 주관으로 2008년부터 경제 5단체 등과 시행하고 있으며 대학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이다.

이번 평가는 환경, 에너지, 바이오의약, 바이오의료기기, 광고 등 5개 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대학들 가운데 평가를 참여하는 대학(59개교) 85개 학과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평가에는 코웨이엔텍, LS산전, 유한양행, 오스텔 임플란트, MBN미디어랩 등 43개 기업 임직원과 대학평가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평가 결과 광고 분야에선 동서대, 계명대 등 3개교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동서대 광고홍보학과는 왜 최우수 평가를 받았는가?

동서대 광고홍보학과는 뉴미디어 시대로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일어나는 21세기를 대비하여 미래지향적이며 현실 대비적인 교육을 통하여 영상중심적이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선도하는 전문적인 광고홍보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목표에 맞게 영상 중심적인 광고홍보교육을 주로 하고 있으며 4년의 대학 과정 동안 다음과 같은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전문적 이해 ▲인문학적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기획 능력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적응 가능한 멀티 플랫폼 활용 능력 ▲문제 해결의 의사결정을 반영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능력 ▲방송 스테프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한 분야별 전문성

교내 현장체험 시스템인 미디어 아웃렛에서는 학생들이 광고홍보 콘텐츠의 기획, 크리에이티브, 제작 등 현장 업무의 전 과정을 직접 실습해볼 수 있어서 직무 능력 향상은 물론 진로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한국후지제록스, 네네치진 등과 산업체의 수요에 맞춘 주문식 교육과정인 클래스 셀링(Class Selling) 수업을 통해서도 현장 업무를 미리 해볼 수 있다. 클래스 셀링이란 지도 교수와 산업체 개발자가 공동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산업체에 판매함으로써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전문성을 요구하는 주문식 교육 프로그램이다.

즉, 뉴미디어 환경에 대응 가능한 준경력급 광고홍보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광고PR전공 교수들은 "이번 평가를 계기로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혁신을 통해 산업계의 기대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힘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효진 기자
pahyork@gmail.com

대학일자리센터 개소식 열려 스티브 잡스 버금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



▶축사를 하는 장 총장의 모습

동서대학교는 고용노동부 주관에 있는 대학일자리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따라서 지난 5월 15일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학일자리센터 개소식을 교내 스튜던트 플라자에서 가졌다. 대학일자리센터는 대학과 정부, 지자체, 산업체가 협업하며 지역 청년들의 진로개발 및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서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본교와 센텀캠퍼스에 각각 사무소를 설치하고 지원 인력의 전문화, 산업체 수요기반의 프로그램 개발, 청년들의 요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동서대 '아임 레디' 대학일자리센터장인 박준식 학생·취업처장은 대학일자리센터를 소개하면서 "우리는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해 완벽하

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힘찬 포부를 함께 밝혔다.

이어 장제국 총장은 축사에서 "벤처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2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생각하는 힘이 강하고, 두 번째는 추진력이 있다. 일자리센터에서 취업뿐만 아니라 벤처나 창업에도 많은 지원을 할 텐데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엘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에 버금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서대 출신 최초 변호사인 화학공학부 이경훈 졸업생을 언급하면서 "우리대학에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경훈 동문처럼 적극 참여하면 동서대 학생 모두 각자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찬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장은 "청년

들이 자신에게 맞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데 유능한 코치와 자상한 선생님 역할을 동서대학교가 잘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송찬호 부산시 청년희망정책과장은 "오늘 문을 연 일자리센터가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 및 고용 촉진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 차원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축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 내 현판식에는 장제국 총장, 박준식 대학일자리센터장, 문동민 총학생회장, 최승찬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장, 송찬호 청년희망정책과장, 이은규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장이 참여했다.

박효진 기자
pahyork@gmail.com

Young Kim, 재학생들에게 특강 성공하는 실패, 실패하는 성공



▶특강을 진행 중인 Young Kim의 모습

지난 5월 17일 미국의 '韓人 정치스타' Young Kim이 동서대학교를 방문했다. Young Kim은 미국에서 미연방 하원 의원 에드 로이스 보좌관, 캘리포니아주 의원을 지냈다. 지난해 11월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는 개표 초·중반 상대 후보를 앞서다가 마지막에 1.6%로 아깝게 역전 당하면서 한국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Young Kim은 이번 동서대 방문에 앞서 이미 동서대와는 인연을 맺어왔다. 5월 7일 동서대 미주캠퍼스에서 개최된 동서대학교 제 9기 미주최고경영자과정(AMP) 수료식에서 수료장을 받고 동서 가족이 된 것이다. 이번 방문 또한 장제국 총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Young Kim은 장제국 총장과 함께 한미 양국 간 교육 교류와 동서대 학생들의 미국

진출 지원 등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어서 Young Kim은 민석도서관에서 '성공하는 실패, 실패하는 성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특강에는 동서아너스 사이어티, 동서글로벌영어프로그램 학생을 비롯한 동서대 재학생들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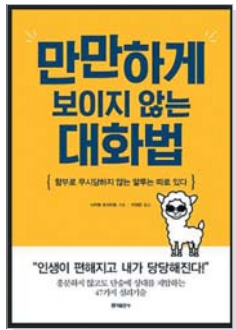
이날 Young Kim은 "성공하는 실패, 실패하는 성공, 실패와 성공은 서로 분리할 수 없다.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내린 결정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린 결정이든 주변에 밀려서 내렸던 결정이든 그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다면 성공했을 것이고, 틀린 결정이었다면 실패했을 것이다. 우리 인생은 성공과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된다. 성공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실패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의 연속선상에서 살아가고 있

는 것이다. 한국은 불가사의한 나라다. 전쟁을 겪고 정말 어려웠던 때를 극복하고 전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걸 보면 정말 자랑스롭다. 이것은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좌절하지 않았으며, 끈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LA에서 4.29 폭동으로 한인 사회가 엄청난 피해를 당했는데 이것을 짧은 기간에 원상복귀한 민족이 한국인이다. 한국인은 성공과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민족이다. 한국인은 오목이다. 오목이는 쓰러져도 항상 다시 똑바로 일어난다. 나도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다시 일어났다. 여러분도 앞만 바라보고 오목이 같은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라고 했다.

박효진 기자
pahyork@gmail.com

책 속의 풍경

진정으로 당당한 나를 찾다



- 책 제목 :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 책 저자 : 나이트 요시히토
- 출판사 : 흥их출판사

이 책은 제목부터 강렬하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제목이라 생각된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편견, 억압, 지위 등등에 의해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며, 대화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다들 한 번쯤은 집에 가는 길에 '아, 그런 이렇게 말할 걸 너무 만만해 보이진 않았을까? 나 왜 이렇게 밖에 말을 못 하지?' 등 여러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연습한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이렇게 말해야지 다음부터는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말아야지, 바보처럼 굴지 말아야지 수십 번 다시 생각하고 연습하지만 막상 실제 상황이 되면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 책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실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필요한 말을 센스 있게 말하는지 알려준다. 필요한 말을 센스 있게 하는 대화법, 영리하게 대화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이

다. 책 속에는 만만해 보이지 않으려 부락을 거절하더라도 "싫어요."라고 딱 자르는 것은 대화의 기술을 모르는 사람이 라고 말한다. 거절은 본질적으로 '상대'의 체면을 깎으며 감정에 응어리를 남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핵심은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호감을 끄는 데 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면서 호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은이 이자 일본 유명 심리학자인 나이트 요시히토는 '내가 어떤 사람이나'를 결정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결과를 결정 한다고 지적하고, 무례한 말에는 바로 반격이 생각나지 않더라도 웃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 무시당하지 않는 비결이며, 상대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다 혹은 어떻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스스로 노력하는데 그치지 말고 눈으로 보일 수 있을 만큼 과정 되게 해야 한다. 자신이 없을 때는 겸손하게 어필하는 것 아는 것이 안전인데, 그 이유는 명확하게 틀린 발언을 하고 그것을 상대 방에게 지적받고 나서야 수정한다면 의문을 불러일으키게 되기 때문이다. 행동은 말 이상으로 강렬하게 자신의 진심을 말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때는 '이것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책 구절 중 "내가 대화법에 관심을 쏟게 된 이유는 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높이고 타인에게 만만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역시 '말'이라는 무기가 제일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사람은 살아가며 '말'을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고 '말'로 서로를 사랑하고 미워하며 응원하고 위로해준다. 그만큼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말을 매일 사용하면

서도 이 위대함을 가끔은 무시한 채,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 그러다 한 번씩 후회를 하곤 한다. 필자 또한 그렇다. 평소에는 말의 위대함을 잊고 살면서도 한 번씩 가슴 깊이 후회하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깨닫는다. 필요한 말을 센스 있게 영리하게 한다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훌륭해 보일 수 있고 당당한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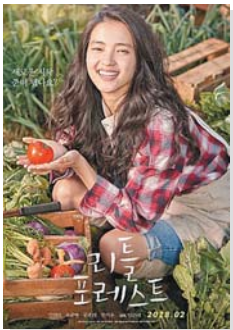
책에서는 적절한 비유법을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직유, 은유, 의인법 등 여러 비유의 방식 중에서도 대화에 가장 유용한 비유는 '은유'를 사용하는 것이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것은 마치 ○○ 같다."라는 표현에서 마치 ○와 같다 틀 때나고 "그것은 ○○다."라고 딱 잘라 말하면 된다. 예를 들어 학력사회를 논의로 주제를 다룰 때, "부모가 부자면 아이의 교육에 돈을 많이 쓴다. 그러면 아이는 고학력자가 된다. 고학력자가 되면 좋은 일을 구할 수 있어서 그 아이도 부자가 된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학력사회는 귀족사회다."라고 딱 잘라 말하는 편이, 훨씬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다고 한다.

필자는 이 책을 서로를 평가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평가를 하고 평가를 당하는 삶을 살아가며, 더욱 영리하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 타인에게 만만하게 보인 순간들로 인해 상처나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극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책을 세상을 제대로 영리하게 살아가는 법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적을 적게 만들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해하던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이달의 영화—리를 포레스트

지친 생활을 떠나 시작하는 마음의 치유



- 영화제목 : 리를 포레스트
- 영화감독 : 임순례

최근 김태리가 주연으로 출현한 한국 판 <리를 포레스트>가 큰 인기를 끌었다. 그동안 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시골의 소박한 일상을 주제로 한 영화였기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큰 역할을 하였던 것 같다. 최근 한국엔 '막방'이 유행을 일으키고 있다. 텔레비전을 켜 보면 대부분 국내의 음식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라던가 음식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등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사랑은 꾸준히 인기를 받고 있다. 리를 포레스트는 이러한 '막방'을 대표하는 한국 영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사실 이 영화는 일본의 '모리 준이치'가 제작한 영화를 리메이크 한 한국판 <리를 포레스트>이다. 일본 원작은 여름과 가을, 겨울과 봄 사계절을 각 두 가지로 나누어 따로 개봉하였지만, 한국판은 사계절을 합쳐 한편으로 제작하였다.

한때는 한국만이 개봉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과연 특유의 한국 정서를 잘 살려서 리메이크를 할 수 있을까 걱정하

였다. 일본에서는 소박한 음식을 주제로 한 영화는 이미 상용화되어 지금도 꾸준한 인기를 얻어오고 있다. 하지만 그에 비해 한국은 큰 스케일을 주제로 하는 영화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개봉한다고 하더라도 큰 흥행을 불러오진 못할 거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깨고 리를 포레스트는 100만 관객이라는 성공적인 흥행을 달성하였다. 한국의 '막방' 유행과 훌륭한 캐스팅, 또한 나와 같이 액션, 스릴러 영화보다 일본처럼 조용하고 잔잔한 영화를 좋아하는 일부 관객까지 저격하면서 성공을 이룰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주인공인 헤원이는 서울에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도시에서 각박한 삶을 살아 가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런 헤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향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의 맛이 아니었다 생각한다. 실제로 영화에서 헤원이는 시골로 왜 내려왔냐는 친구의 말에 "배고파서."라고 대답한다. 임용고시 준비를 하느라 학원에 시간을 쪼개 근처에서 간단하게 밥을 때우기 일쑤였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 먹는 도시락을 먹다가 뱀어 내가까지 하였다. 반복되는 듯 힘겨운 생활에 지친 헤원이는 결국 도시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는다.

자신이 어릴 적에 살았던 시골로 내려온 헤원이는 먼저 집 안을 둘러본다. 자신이 떠날 때와 바뀐 것이 없는 작은 주택이지만 생활하기에 큰 불편함이 없는 소박한 집 풍경을 보여 준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헤원이의 '막방'이 시작된다.

집에 있던 쌀을 이용해서 밥을 지은 후 대파와 배추, 된장을 조금 풀어서 배춧국을 완성한다. 그저 배춧국과 쌀밥뿐이지만 헤원이는 도시에서 밥을 먹을 때

보다 훨씬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밥을 한 숟갈씩 떠먹어 간다. 이 부분에서 도시에서 사 먹는 그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도 고향에서 먹는 간단한 한 끼 식사가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 보여 준다. 외에도 삼색 시루떡, 양배추 빈대떡, 오이 풍국수, 막걸리와 같은 한국인들이 듣기만 해도 침이 고일 것 같은 한국 정서가 듬뿍 담긴 식사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헤원이가 만들어내는 요리는 모두 어릴 적에 엄마에게서 배웠던 요리들이다. 헤원이의 엄마는 이 영화에서 헤원이가 성장할 수 있게, 성숙해질 수 있는 과정을 요리로 가르쳐 주는 인물이다. 시골을 떠나기 전 수능을 막 끝낸 헤원이가 곁을 떠나버린 엄마는 먼저 이 시골을 떠날 거라 자부했던 헤원의 자존심을 자극하기도 한다. 끝내 영화에서 엄마와 상경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헤원이가 어릴 적 추억을 되살리며 요리를 하고, 진정한 어른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다. 영화 마지막에선 1년 동안의 시골 생활을 끝낸 헤원이가 잠시 도시로 돌아간다. 무작정 시골을 떠나는 것이 아닌, 성숙해진 헤원으로서 처음과는 다른 발걸음이다. 그리고 잠시 떠났던 헤원은 다시 시골로 돌아오는 장면과 끝으로 영화는 막을 내린다.

이 글에서 소개하지 못했지만, 옛날에 같이 뛰고 놀았던 시골 친구들과의 청춘 이야기도 엿볼 수 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여유롭게 해주는 재료가 듬뿍 들어간 영화 한 편이 제작된 것이다. 가끔 어딘가로 떠나고 싶을 때, 구수한 된장국에 갇혀 지은 따뜻한 쌀밥이 생각난다면 영화 <리를 포레스트>를 통해 마음의 여유를 느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한 다.

곧 여름방학, 여행은 어디로 갈까?



▷사진출처 - 네이버 블로그



▷사진출처 - 네이버 블로그

6월 여름이 돌아오고 동서대는 종강을 앞두고 있다. 종강일은 6월 19일로 많은 학생들이 설렘과 기대를 품고 있을 것이다. 또 '여행은 어디로 갈까?'라고 고민하는 동서대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센스 혹은 국외의 여행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국내로 추천하는 여행지는 제주도, 국외로 추천하는 곳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다.

#대한민국, 제주도

제주도는 4계절 모두가 아름다운 곳이다. 자연경관과 풍경이 아름답다고 손꼽히는 여행지 중 하나다. 그중에서도 삼다수 숲길, 파라세일링과 패들 보드, 영주산 천국의 계단에서 볼 수 있는 산수국-해바라기 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또한 제주관광공사에서 추천하는 한림동명리, 염나니코지길 벵이고운길에 가보는 것도 좋다.

삼나무 숲길은 옛 임도를 활용해 조성한 곳이다. 또한 이곳은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전년의 숲 부문 '여울림상'을 받았을 만큼의 자연스러운 매력에 있다. 또 걷기 힘든 숲길이 아니라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숲길이라는 것이 포인트다. 원시림에 가까운 숲에 들어서면 고요하고 평온한 기분이 들게 한다.

한림동명리는 제주도에서 이런 곳이 있었나? 라고 생각할 만큼 생소한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수류촌으로 불릴 만큼 예로부터 맑고 풍부한 물을 자랑하고 있다. 그리

고 세계중요농업유산 발단으로 선정됐다. 걷다 지친다면 '동명정류장'에서 아픈 다리를 쉬어가도 좋을 것이다. 이 카페는 오래된 마을회관을 개조한 아담한 쉼터로,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발단길을 홍보하고 제주를 알리는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

더운 여름을 식히는데 생각하는 곳은 단 연고 바다라고 할 수 있다. 눈으로 바다를 감상하는 것도 황홀하지만 몸을 움직여 액티비티를 즐기는 것 또한 땀을 식히는데 제격이다. 바다 위에 떠돌아 감상하고 싶다면 파라세일링을, 균형 감각에 자신 있다면 패들 보드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바다에 몸을 띄운 채 진행되는 보드 위 요가는 흐트러진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상 상황에 따라 운영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꼭 사전에 날씨를 확인해야 한다.

여름 제주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다. 바로 산수국과 해바라기이다. 이 꽃들은 6월과 7월에 피니 확인하고 가야 한다. 산수국은 은은함을, 해바라기는 발랄함을 엿볼 수 있다.

마지막은 염나니코지길 벵이고운길이다. 벵이고운길은 구좌읍 평대리를 중심으로 인근 마을과 마을을 잇는 길이다. 편평하고 너른 들판이라는 뜻의 '벵디'와 '평대'가 어딘가 닮았다 했더니, 예부터 어른들은 평대를 벵디로 불렀다고 한다. 벵이고운길 해안 도로를 따라 한동리를 향하다 빨

간 등대가 놓인 작은 방파제가 '염나니코지'다. 이런 아침 이곳을 찾는다면, 빨간 리를 쉬어가도 좋을 것이다. 이 카페는 오래된 마을회관을 개조한 아담한 쉼터로,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발단길을 홍보하고 제주를 알리는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아름다운 경관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다가오는 여름방학 국내여행지로 제주도로 가보는 것은 어떠할까? 또한 제주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느낌, 자연경관이 다르니 4계절을 만끽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은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 중 하나다.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로 비행기 값 또한 다른 나라에 가는 것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값이 저렴하다. 게다가 7~8월에 간다면 이곳은 초가을이 되고 파리로 가기도 딱이다.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유럽이라고 불리고 있는 만큼 구경으로도 좋을 것이다. 블라디보스톡에 가면 블라디보스톡 역, 중앙광장, 개신교, 독수리 전망대, 우수리스크 역사투어, 반야 체험을 하라고 추천하고 싶다.

먼저 블라디보스톡 역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시발점이자 종착역이다. 17세기의 화려한 러시아 양식의 블라디보스톡 역사가 모스크바 아로슬라브 역과 유사하다. 역내는 박물관 느낌이 들어 전장 변화는

쌍두독수리를 중심으로 한쪽은 모스크바 다른 쪽은 블라디보스톡으로 뻗었다. 또한 기차역 플랫폼에는 옛 기관차와 모스크바까지 가는 9288km가 적힌 시베리아 횡단도 기념비가 있다.

중앙광장은 혁명광장이라고도 불린다. 혁명광장은 집회와 약속 장소 또는 국가 행사의 장으로 인기 있는 곳이다. 이곳은 매주 금요일에 정기 시장이 열리고 있다. 또 1961년 국동군 용사를 위한 기념동상으로 위치해있다.

블라디보스톡의 개신교는 전쟁 출발 당시 승리를 기원하며 문 사이를 지나가 러시아를 되찾게 되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곳이다. 또한 전쟁 당시 희생당한 군인의 이름이 새겨져있는 '영원의 불꽃'이 있다. 이곳은 꽃다발을 놓고 기념촬영을 하는 곳으로 유명한 장소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에선 반야가 유명하다. 반야는 러시아 전통 목욕탕으로 수증기를 이용한 습식 사우나이다. 이곳에서 사우나를 즐긴 후 '베니크'라는 목욕 도구로 몸을 두드려야 한다. 베니크는 문진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제주도와 블라디보스톡을 소개했다.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여행을 다녀오는 것을 추천한다. 자료출처 : 디지털 조선일보, 네이버 싱글리스트, 마이리틀트립

이주원 기자
soo4793@gmail.com



축제·공연·소식



지깅하이드

- 기간 : 2019. 06. 28. (금) ~ 2019. 06. 30. (일)
- 장소 :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 주최 : 주식회사 에스제이엔티



김종권 콘서트

- 기간 : 2019. 06. 22. (토)
- 장소 :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 주최 : (주)하늘엔티



부산 푸드 필름 페스타

- 기간 : 2019. 6. 20. (목) ~ 2019. 6. 23. (일)
- 장소 : 영화의 전당 일대
- 주최 : 부산 푸드 필름 페스타 운영위원회 (재)영화의 전당



거미 투어 콘서트

- 기간 : 2019. 06. 22. (토)
- 장소 :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
- 주최 : (주)씨제스엔터테인먼트 (주)제이제이팩토리



제1회 대구 그랜드 뮤직 페스티벌

- 기간 : 2019. 06. 08. (토)
- 장소 : 대구 스타디움 주 경기장
- 주최 : 조은라인



언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 기간 : 2019. 06. 23. (일)
- 장소 : NC스퀘어
- 주최 : 엠스테이지



앙리 할아버지와 나

- 기간 : 2019. 06. 15. (토) ~ 2019. 06. 16. (일)
- 장소 : 영화의 전당 하늘연극장
- 주최 : 예명

한국 전쟁과 둘로 나뉜 한 민족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들

올해 2019년을 기점으로 한국 전쟁이 69 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38도 선으로 나뉘어진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으로 이어져 수많은 피해를 남긴 한국 전쟁이라는 아픔을 남겼다. 현재까지도 통일이라는 목표는 우리 한반도의 큰 과제로 남아있다.

한반도의 독립과 신탁통치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한반도는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독립을 맞이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일본의 항복으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 한 한반도 내에는 이념 대립 등의 혼란이 지속되자 미국과 소련은 각각 북위 38도 선을 경계로 하여 남한은 미국, 북한은 소련의 군대가 주둔하게 됐다.

이에 같은 해 12월 26일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두고 회의를 개최하여 한반도에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5년간 신탁통치를 실시할 것을 협의했다. 이후 한반도 내에 거센 반발이 일어났고, 두 차례에 걸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됐다.

남북한의 단독정부 수립

미소공동위원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미국은 국제연합에 한반도 문제를 넘기게 됐다. 그리하여 1947년 11월에 열린 유엔총회 회의 결과에 따라 유엔 임시 한국 위원단을 구성하여 감시 아래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당시 북한을 점령하고 있던 소련은 이를 거부하였고, 1948년 5월 10일 유엔 임시 한국위

원단의 감시 아래서 남한만 총선거를 실시하여 8월 15일 이승만을 정부로 하는 대한민국 건국이 선포됐다.

북한 또한 8월 하순에 북한 공산당 단일 후보 출마, 이른바 '흑백 선거'를 실시하여 김일성을 초대 내각 수상으로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그렇게 남북한 각각의 정부를 수립하여 남한은 미국 외 유엔의 합법정부 인정, 북한은 소련 외 공산주의 여러 나라가 합법정부로 인정함으로써 남북의 분단은 공식화됐다.

미국 애처스 라인 발표

당시 미국은 소련 외 스탈린과 마오쩌둥 등 공산주의 세력 확대를 막기 위하여 1950년 1월 12일 애처스 미 국무장관이 언급한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을 확인했다. 문제가 된 것은 한국과 타이완 등이 극동 지역 방위선에서 제외됐다. 한반도를 포함한 방위선 밖의 지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자체적으로 저항을 해야 하지만, 유엔헌장 아래에서 전제 문명 세계가 개입할 것이라 부연했다. 즉, 방위선 제의 국가들의 안보와 관련된 군사적 공격에 대해 보장할 수 없었다.

공산국들의 남침 결정

북한이 남침을 결정한 것은 단독이 아닌 중국과 소련의 지원과 함께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다. 1950년 4월 초, 김일성과 박헌영은 비밀리에 다시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이 회담에서 스탈린은 비로소 중국이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북한의 선제 남침 전쟁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세 국가는 미군의 참전 이전에 전면 공격으로 2개월 내에



▶인천상륙작전

전쟁을 끝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 전쟁의 발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38선 전역에 걸쳐 전면 남침을 개시했다. 북한은 바로 동두천과 의정부를 거쳐 서울로 진격했다. 곧바로 서울이 함락이 임박하자 이승만 정부는 27일 새벽 3시에 서울을 탈출했다. 공산군의 남하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한강대교를 폭파하였는데 북한군을 3일 동안 지체시킬 수 있었지만, 90만 명에 달하는 서울 시민 대부분이 도망가지 못한 채 서울은 9.28 수복 때까지 공산 통치를 감당하여야 했다.

전쟁 발발 소식을 접한 미국은 25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하여 북한의 무력공격은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행위'라고 선언하고, 북한은 즉시 전투행위를 중지하고 그 군대를 38선으로 철군시킬 것을 요청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에게 한국에 원조를 제공할 것과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원조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7월 7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반도의 유엔 군사 활동을 위하여 미국에 최고 지휘권을 위임하는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미국의 맥아더가 유엔군 총사령관에 임명되고 유엔군의 파견이 결정됐다.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1950년 6월 29일 서울이 함락되고 북한군이 남침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자 맥아더는 한강 전선을 사찰하고 7월 15일, 합동참모본부에 인천상륙작전을 상선했다. 하지만 유엔군 측은 유엔군의 병력 부족과 인천이 지리상 대규모 상륙작전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했다. 이로 인해 이것은 결렬됐다. 이후 맥아더는 인천이 아군뿐만 아니라 적 또한 기습을 생각하기에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기에 의표를 찌러 공격할 것을 주장하였고 9월 9일, 동해안 주둔진 근처에 상륙하는 것으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정식으로 인천상륙작전이 승인됐다.

1950년 9월 12일 미국과 영국의 혼성 기습 부대가 군인을 공격하고, 동해안 전대는 9월 14일과 15일 삼척 일대에 포격을 가하며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됐다. 9월 15일 새벽부터 개시한 상륙작전에서 유엔군은 인천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약 3일 후 유엔군은 김포와 영등포 두 방향으로 진출, 서울을 포위하기 시작했고, 9월 28일에는 서울을 완전히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군의 참전

1950년 10월 5일 개최된 미국 트루먼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의 웨이크 회담에서 중국군의 개입에 대한 가능성을 보지 않았다. 중국이 공군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손실을 볼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회담 다음날인 중국군이 이른바 '의용군'이라는 명칭 아래 일시에 3개 사단 이상을 한국전쟁에 투입했다. 중국군의 참전이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은 보급에 혼란과 미군은 청진강 남쪽까지의 후퇴를 명했다. 이어 미국의 합동참모본부는 연안 진격은 한국군에게 맡기고 유엔군은 청진에서 진격을 멈추도록 하였으나 맥아더 장군은 이에 불복했다. 유엔이 다시 진격하기 시작한 11월 25일, 중국군이 16개의 사단에 이르는 막대한 군사력으로 서부 전선을 공격해왔다. 맥아더는 급히 유엔에 특



▶휴전반대 시위를 펼치는 시민들

별성명을 보냈지만, 중국의 진격에 의해 '12월 후퇴'가 이뤄졌다.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세는 역전이 되고 장기화할 조짐이 나타났다. 중공군의 원조에 힘입은 북한군은 12월 28일에는 다시 38선을 넘어 남진했다. 공산군은 1951년 1월 4일에는 다시 수도 서울을 점령하기에 이르렀고, 한국 정부와 많은 민간인은 다시 남하 피난길에 올랐고 이것은 '1.4 후퇴'로 이어졌다. 1951년 1월 25일, 유엔군이 다시 반격을 재개하며 인천과 김포, 서울을 재탈환하였고 3월 24일에 다시 38선을 돌파했다.

휴전 회담

중국을 포함한 북한 공산 측은 유엔군의 공격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승산이 없음을 인식하게 됐다. 게다가 장기화된 전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감내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됐다.

이러한 전쟁이 되풀이되면서 휴전 문제는 양측의 필요성에 따라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하여 회담은 여러 차례 진행됐다.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이 열렸으나 38도 선 경계를 갖고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회담은 결렬됐다. 후에 10월 25일, 다시 휴전회담이 열렸으나 이번엔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 갈등을 빚으면서 다시 결렬됐다. 포로 문제는 1953년 3월 28일 공산 측에서 휴전회담의 재개를 제의하면서 본국의 송환을 희망하지 않는 포로를 중립국에 맡겨 해결하자는 제의를 하게 됐다.

통일을 바꿨던 남한

이대로 휴전협정이 성립되면 수많은 인

명과 물자 피해를 겪고서도 전쟁에서 한국의 통일이 좌절되고 북한의 침략 상대로 통일이 더욱 좌절될 것이라 생각하였던 이승만 정부 측 남한은 한국군만으로 전쟁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다. 통일을 지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이승만은 반공포로를 자체적으로 석방시킴으로써 전쟁이 휴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반대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전투에서 경계선을 중심으로 북한 측에서 확장하려 하자 이승만 정부는 7월 11일 휴전에 동의하게 됐다.

한국 전쟁의 휴전

1953년 4월 26일, 외상 회의가 제네바에서 열렸다. 7월 21일까지 약 3개월에 걸친 제네바회의는 인도 지나를 북위 17도 선을 경계로 하는 남북 월남을 분할하여 휴전을 성립시키게 됐다. 한반도 문제는 6월 15일에 유엔 파병 16개국이 토의 종결 선언을 남긴 채 끝남으로써 분단 상태가 지속되고 휴전협정이 유일한 공식 문서로 남게 됐다.

한국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이제 막 독립한 한반도에 있어서 경제적, 인적, 물적으로 큰 재해를 가져다주었다. 약 250만으로 추산되는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국토의 황폐화는 물론,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들은 이산가족이 되어 통일이 되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이들의 아픔을 알고 통일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대백과사전
▷사진 출처 - 한국민족대백과사전
한여원 수습기자
hanyeowon0329@gmail.com

태극기와 함께한 평화의 날, 호국 보훈의 달



호국 보훈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에 대해 감사를 전하기 전에, 호국 보훈이 어떤 의미를 의미하는 지 부터 알아야 한다. 호국 보훈이란, 나라를 지키고 공훈에 보답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전 하는 것으로, 목숨을 바쳐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날이다. 6월 6일 현충일, 6월 25일, 6·25전쟁 사변일, 6월 29일 연평 해전 추념일 등 6월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들을 위한 기념일이 많다. 그래서 호국 보훈들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알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열사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것에 대한 감사함을 우리 스스로 드러내야 한다.

태극기의 의미와 모양

태극기는 우주 만물이 생겨난 근본 원리인 태극의 이치를 본떠서 만들었다. 흰 바

탕의 깃발 한 가운데에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나타낸 태극 도형은 우주의 근본인 음과 양을 상징하며, 끝없는 계속을 나타낸다. 이는 곧 우리 민족의 창조성과 무궁한 발전을 뜻 한다.

또한 사방 대각선 위에 검은색으로 나타낸 건·곤·감·이의 4괘는 서로 마주 보고 있어 우리 민족의 평등사상을 의미한다. 이렇듯 태극기의 도형은 창조·발전·자유·평등·무궁의 뜻을 지니고 있다. 태극기의 바탕인 흰색은 깨끗하고 맑은 백의민족을 상징하며,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국가봉도 우리나라의 나라꽃인 무궁화 봉오리를 상징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표표인 동시에 '널리 사 람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을 나타낸 표현이다.

태극은 바탕을 중심으로 하여 지름이 바 탕 너비의 2분의 1이 되게 원을 그리고



건·곤·감·리의 4괘가 그려진다. 건곤리란 기본 패로서, 태극기의 모서리에 위치하여 하늘(건)과 땅(곤), 물(감)과 불(이)을 상징한다.

앞서 우리는 태극기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살펴보았는데, 태극기를 그리는 방법 또한 필수적으로 숙독하고 있어야한다.

태극기를 그리는 법

우선 태극기의 구성으로는 전체 깃면은 가로와 세로의 비를 3:2로 구성되어 있고, 도안은 태극도형과 4개의 패로 나타나 있으며, 태극기의 색상은 각각 빨강과 파랑, 검정으로 구성되어있다.

올바른 태극기를 그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깃면의 두 대각선이 서로 교차하는 점을 중심으로 지면 너비의 2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먼저 그려야한다. 그 다음으로, 대각선상의 원의 지름을 2등분하여

2등분원의 반원을 또 2분의 1배하여 그려준다. 그려준 다음에는 반원으로 연결된 원의 윗부분은 빨강색, 그 아랫부분은 파랑색으로 색을 채워야한다.

하지만 우리가 태극기를 그릴 때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은 바로 4배 일 것이다. 하지만 가장 쉽게 태극기를 그리기 위해서는 3.4.5.6 기법을 기억해야 한다. 3.4.5.6이란, 4배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세로의 측면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숫자를 외우다 보면 헷갈리지 않고 쉽게 그릴 수 있을 것이다. 태극기를 그릴 때에는 제일 먼저 건괘를 그리고, 그다음에 이괘 감괘 곤괘 순으로 세로로 그려 나가야한다.

게양 방법

그렇다면 태극기를 어떻게 달아야 할까? 태극기는 우리 겨레와 국가를 상징하는 것

인만큼 언제나 소중히 간직하고 잘 다루어야 한다. 해가 뜰 무렵에 달았다가 해가 질 무렵에는 반드시 걷어 들이고, 비 또는 눈이 내리는 날은 달지 않는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그 때에만 달기도 한다. 경축할 때에는 기와 깃봉 사이를 떼지 않고 달고, 조의를 표할 때는 깃 면의 너비 만큼 내려서 단다. 때문에 달 때는 집 밖에서 보아 왼쪽에 끈게 세우며, 건물의 옥상에는 그 중앙에 국기를 단다.

하지만 외국기와 같이 달 때는 최우선의 위치에 단다. 태극기와 외국기 하나를 같이 세울 때는 태극기를 왼쪽에 세우고, 서로 엇갈리게 할 때는 태극기의 깃면이 단상을 향하여 왼쪽에 오게 하고 깃대는 밖으로 가게 한다.

세 나라 이상의 외국기와 함께 세울 때는 홀수인 경우에는 태극기를 중앙에 달고 외국기는 국명의 알파벳순에 따라 왼쪽, 오른쪽 차례로 단다. 짝수일 경우에는 태극기를 왼쪽에 달고, 외국기는 국명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오른쪽으로 차례차례 단다.

호국의 달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호국보훈의 달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추가로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직접 그 현장에 찾아가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기리는 것이다. 그 중 대표적으로 3곳이 있는데, 첫째로는 천안에 위치하고 있는 독립기념관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 관한 유물과 자료를 보관, 전시하며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종합적 학술전시관이다. 이곳에서 관람객은 직접 독립운동가가 되어 독립만세를 부르고 임시정부에서 활

동하며 항일무장투쟁과 다양한 문화 운동 등에 자유롭게 참가가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용산 전쟁기념관이다. 이는 우리나라 유일의 전쟁사 종합박물관인데, 전쟁의 아픈 상처를 추모하고 전쟁의 교훈을 새기며 평화를 기원하는 곳이다. 실제로 전쟁 체험실에서는 당시 그 사건을 잘 묘사하기 위해 총소리를 비롯한 전쟁의 참상과 생활상이 잘 드러나 있는 곳이다.

세 번째로는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관광지로 무극전적 국민관광지다. 이는 6.25 전쟁 당시 국군의 첫 승자인 감우재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감우재 마을의 중, 생활도구를 비롯하여 전쟁의 참상과 생활상이 잘 드러나 있는 곳이다.

오직 대한민국 안에서, 휘날리는 '태극기'를 전국에서 볼 수 있는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그들은 자신의 가족보다는 조국을 생각하여 나라를 지키는데 그 누구보다 앞장섰으며, 자신의 목숨을 바쳐 현재의 안락한 삶을 이룩한 고마운 분들이다. 그러나 현실은 호국 보훈의 달이 무엇인지, 국가의 의미조차 알지 못 한다.

우리는 이제 6월 달을 맞은 만큼 국가에 힘을 바친 분들에게 보답해야하며,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글을 통해 태극기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현신의 가치'를 깨우쳐야 한다.

자료출처 : 다음 지식백과
대한민국 전자정부
독립 기념관 홈페이지
전자 기념관 홈페이지
▷사진출처 - 대한민국 참전 인터넷 전우회

조은빛 수습기자
dmsqlc111@gmail.com

■ 동서대 보건실 실장님 인터뷰-간호학과 책임교수 이윤복

여름 방학, 이것만은 조심하자!

교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여름 질병관리에 모두 주목!



▶ 동서대학교 보건실 담당 실장님으로 활동 중인 이윤복 간호학과 교수님



드디어 1학기를 마무리하고, 학생들 모두가 손꼽아 기다려온 여름방학이 찾아왔다! 종강을 맞아 설렘도 크지만, 한편으로 7월 8월 다가오는 무더위에 급증하는 질환으로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우리의 질병관리에 도움을 주실 보건실 실장님 이윤복 교수님을 동서대학교 신문사가 만나 보았다.

Q.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보건실 실장이며 간호학과 책임교수 이윤복입니다. 반갑습니다.

Q. 곧 있으면 종강이고 방학인데, 여름 방학 안전 수칙에 뭐가 있을까요?

A. 물놀이와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몸무게에 맞는 안전 인증을 받은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식사 전·후에는 수영하지 않도록 합니다. 바닷가나 강가의 경우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면 물의 깊이는 배꼽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살이나 파도에 따라 물놀이를 즐기도록 하고, 수영금지 안전선을 지키도록 합니다. 수영장이나 워터파크의 경우 바닥이 미끄러우므로 뛰어들지 마시고, 질식사 위험이 있으므로 사탕이나 껌을 입에 문제코 수영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일 바다 수영 중 해파리에 쏘였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서 통풍 부위를 물이 아닌 식초를 이용하여 30초 이상 씻어내 줍니다. 해파리에 쏘이면 독소 낭포가 피부에 있기 때문에 이를 물로 씻어낼 경우 독소 낭포가 터지면서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식초를 바로 구할 수 없다면 바닷물을 이용하여 10분 이상 씻어낸 후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Q. 요즘 A형간염이 문제 되고 있는데,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이 있을까요?

A. 먼저 A형간염은 제1군 법정감염병으로, A형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감염 환자와 직접 접촉·혈액이나 성접촉을 통해 전파됩니다. 평균 28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초기에 발열·두통·피로 등 전신증상이 생긴 후 암

갈색 소변·황달 등의 증상이 발현하여 수주에서 수개월 후 회복됩니다. 증상 발현 2주 전부터 황달 발생 후 1주까지 전파 위험이 가장 높지요. A형간염 예방을 위한 기본은 '30초 이상 비누로 올바른 손씻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은 끓여 마시고, 음식을 익혀 먹으며 채소나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겨서 먹도록 합니다. A형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거나 최근 2주 이내에 A형간염 환자와 접촉한 경우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여름에 조심해야 할 질병이나 질환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여름에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으로 상승하는 폭염 날씨가 이어질 경우, 인체는 열에 노출되어 여러 가지 질환이 유발될 수 있는데요. 강한 열 발전에서부터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열사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온열질환은 열사병·열탈진·열경련·열실신·열부종·열발진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흔히 땀띠라고도 하는 열 발 전은 여러 개의 붉은 뾰루지 또는 물집으로 목, 가슴 상부, 사타구니, 팔, 다리 안쪽에 나타납니다. 열 주종은 손이나 발이 붓는 것이며, 열실신은 더위로 인해 어지러움을 호소하다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것입니다. 열탈진은 40℃ 이하의 체온을 보이며 땀을 많이 흘리고 창백해지며 근육경련과 극심한 피로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열사병은 땀도 더 이상 나지 않고 40℃ 이상의 고열로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를 보이며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응급상황입니다.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Q. 여름을 맞아 다이어트에 돌입한 학생들이 많은데 이것만은 지키면서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여름에는 체온조절 위하여 땀 배출이 늘어나므로 탈진의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운동과 식이조절을 할 때 무엇보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갈증 느껴질 때만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햇빛이 강한 낮 시간대가 아닌,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저녁시간에 운동을 하도록 합니다. 여름에는 더위로 인해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도록 하며 실내·외 운동 구분 없이 평소보다 운동 강도를 10% 정도 줄여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일교차와 실내, 외 온도 차이를 여름 감기 환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맞습니다. 감기는 겨울이 아닌 여름에도 걸릴 수 있지요. 감기는 건조한 공기 때문에 유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기가 건조하면 체내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는 점막도 건조해지고 이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걸리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일교차가 크거나 에어컨으로 인해 실내외 온도차가 클 경우에도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에어컨을 켜두면 시원한데, 밖에 나가면 더워서 땀을 흘리고 다시 실내에서는 찬바람에 땀이 식으면서 추워지죠. 에어컨이나 휴대용 선풍기 등이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지만, 호흡기 점막을 건조하게 하여 면역력 저하로 감기를 부르는 것입니다. 냉방 정도만 조절해주어도 대부분 감기 증상이 호전되지만 방치하여 증상이 심해질 경우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름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외 온도 차이를 6℃ 이내로 유지하고 과한 냉방은 자제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환기하여 실내공기가 지나치게 건조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Q. 교수님이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가장 바쁜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햇빛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주어진 과제들을 즐기며 유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회할 날이 적어질 것이며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정성영 수습기자
duddk1015@gmail.com

■ 학생 인터뷰-법원 사무직렬 합격자 유주연(경찰행정학과 4학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생소해 보이는 법원 사무직 공무원, 그 이야기를 들어보자



▶ 법원 공무원 교육원 과정을 수료중인 유주연 학생 모습



▶ 유주연 학생

경찰행정학과를 전공하며 전공 학생 수가 선택하는 경찰 공무원이 아닌 다소 낯설어 보이는 법원 사무직 시험에 합격한 유주연 학생을 만나보았다. 법에 매력을 느껴 전과까지 하며 공부하여 선택한 법원 사무직 공무원. 생소한 법원 사무직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와 공부 비법과 전략, 시험공부 스토리 등 많은 에피소드가 담긴 유주연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행정학과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 유주연입니다.

Q. 법원 사무직 공무원을 해아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법이 재밌어서 전과를 했고, 제가 좋아하는 법과 남을 돕고자 하는 저의 성격이 어떤 직업에 잘 어울릴지 찾아보다가 법원직 공무원을 알게 되어 준비했습니다.

Q. 법원 공무원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지금은 주로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시나요?

A. 법원 공무원은 법원에서 근무하는 직렬입니다. 맡는 업무는 각종 소송 재판 관여(민사, 형사, 행정, 소년, 가사 등), 공판, 민사신청(가압류 및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 민사 집행(경매 및 채권 압류, 추심) 가족관계등록, 도산(파산 및 회생 업무), 법원행정 등 업무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법원 공무원은 사법부 소속이므로 선발시험 주체가 인사혁신처(법원직, 국회직 두 직렬 빼고)는 대부분 행정부 소속의 인사혁신처 주관)가 아닌 법원행정처라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9급 중 유일하게 8과목을 보는 시험으로 7급 공무원 시험 보다 한 과목 더 많습니다. 1교시는 공통으로 헌법(25문), 국어(25문), 한국사(25문), 영어(25문) 시험을 2교시 법원 사무직렬 관련으로 민법(25문), 민사소송법(25문), 형법(25문), 형사소송법(25문)을 시험 합니다. 지금은 일산에 있는 법원 공무원교육원에

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Q. 법원 공무원 준비가 만만치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수험 기간이 얼마나 되세요?

A. 학교에서 공부하던 것을 빼고 8개월 정도 됩니다. 1학기는 21학점을 들으면서 학교를 다니느라 주로 저녁에 한두 시간 밖에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7월부터 독서실을 끊고 제대로 시작했습니다.

Q.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준비 과정을 말씀해주세요.

A.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는 이미 8개월 밖에 남지 않았던 상황이라 주말도 안 남고 내내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오전에 쉬거나 저녁때 휴식을 하긴 했어도 하루를 통으로 쉰 적은 없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독서실에 가고 10시 30분에 퇴실을 하는 시간들을 반복했습니다. 체력이 부족해서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은 10시에 일어났어요. 공부는 학원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학원 커리큘럼이 4월부터 시작이라 밀린 강의를 배속으로 들으면서 4월~6월의 시간들을 빠르게 따라잡았습니다.

Q. 공부하는데 집중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슬럼프 극복은 어떻게 하셨나요?

A.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을 때는 법원직 합격수기를 읽어보거나 법원직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다른 수험생들은 지금 이 시기의 슬럼프에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모님 생각을 했어요. 합격했을 때 좋아하실 부모님의 모습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Q. 시험 과목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셨나요?

A. 8과목 중에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영어, 국어였습니다. 법원직 시험은 국어 영어가 독해식으로 나오는데 다른 공무원 시험과 똑같이 문제당 1점을 배정해주기 때문에 시간관리가 힘들었어요. 다른 공무원 시험 보다 좋은 점은 8과목의 배정이 똑같고 모두를 합산한 것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영어랑

국어의 비중을 제일 낮게 공부하고 다른 것을 잘 받아서 메꾸자는 전략으로 공부했습니다.

Q. 준비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던 적이 있나요? 무엇인가요?

A. 따로 난관은 없었어요. 공부하면서 제가 이 나이에 공부를 하도록 지원해주시고 무한한 응원을 해주신 부모님이 계셨어요.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공부 하는 기간은 저에게 제일 행복했고 즐거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주변인들의 시선과 질타를 받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기가 얼마나 될까요? 저한테는 수험 기간이 그런 기간이었고 교육원에 와서 교육 받고 있는 지금도 수험생활은 제게 최고로 값진 경험입니다.

Q. 경찰행정학과 선배로서, 법원 사무직렬 합격자로서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세요. 공무원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최고로 컨디션이 좋고 기분이 좋은 날에 시작해서서 단기간에 빠르게 끝내버립니다.

도전에 나이는 변명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인터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고 싶다면 바로 시작하자는 마음가짐을 나누고 싶다. 빨리 성공하고 싶다면, 빨리 도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깨달았다.

나의 도전을 항상 응원해주는 주변 사람들을 잊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성공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2019학년도 1학기가 마무리되어가는 지금, 다가오는 여름방학에 목표를 설정해 보고 무언가를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떤지 권유해본다. 2달 남짓이라는 짧고도 긴 시간에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김태향 수습기자
hyangsun3311@gmail.com

이달의 성경 속 인물 - 디모데



▶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디모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적으로 하는 자'란 뜻이다. 디모데는 기독교의 신약성경인 사도 행전에 언급되는

인물이다. 기독교의 역사는 기원후 80년 순교한 1세기의 성직자로, 65세에 에페소스의 주교가 되었다고 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 동방 정교회, 성공회, 루터교에서는 디모데를 성인으로 존경하였으며, 가톨릭교회와 성공회의 경우 디모데와 디모테오를 세례명(신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17년 소아시아 남부 지방 리스트로 출생으로 알려져 있으며 어린 시절 어머니 에우 니케(유니케)와 조모 로이스가 유대인 이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배웠다. 이후 파울로서가 45년(46년)에 첫 번째 전도 여행 도중 리스트라를 방문했을 때 그의 집에 묵은 것을 인연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고 아울로스는 디모데를 매우 신임하게 되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동반까지 하고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도 선구자로서 예루살렘까지 같이 가게 되었다. 에페소의 교회의 주교로 임명되었고 파울로스로 부터 2개의 편지를 받아 더욱 복음 전파에 힘썼다.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때 동역자로 발탁된 루스드라 출신의 교회 지도자이다. 사도행전 16장 1절과 바사로 서간에 따르면 디모데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 에우 니케와 그리스 사람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할머니 로이스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는 그대의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 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도 지금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 디모테오 후서, 1:5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디모데는 리스트라를 방문한 사도 파울 톨스의 눈에 들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디모데가 리스트로 와 이코니온에 있는 교우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사도행전 16:2) 주론 : 파울로 우스(리스토)는 디모데(디모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봤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리스트로(루스 드라)로 다시 찾아갔다. 하지만 데리고 떠나기 전에 할례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성서 연구자들은 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파울로스는 갈라티아의 교우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자신은 할례를

결코 준 적이 없다고 말하는 반면(갈라디아 5:11-12), 사도행전의 파울로스는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할례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신학자들은 루카가 사도행전을 쓰기 위해 입수한 정보의 신빙성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1] →반론 : 갈라디아 5:11-12에서 바울로는 할례를 결코 준 적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단지 할례를 전과하지 않았다고 말했을 뿐이다. 바울의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들고 회심한 것으로 보인다. 부친은 헬라인이고, 어머니 유니가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 신앙을 배웠다(행 16:1-3; 딤후 1:5). 사도 바울이 아테네 선교지로 출발할 때 그는 실라와 티모티 마케도니아에서 따로 복음 사역에 헌신하였으며(행 17:1-15), 다시 바울의 지시에 따라 데살로니아에서 독립적으로 사역하였다(살 토 3:1-2). 그 후 바울과 고린도에서 합류하여 계속 바울에게 수종 들었다(행 18:5; 사후 1:1). 후에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향할 때 동행하였다(행 20:4). 훗날

바울이 2차 로마 옥중에 있을 때 쓴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에는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묵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서신에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예리한 정과 진밀감이 잘 나타나 있다. (딤후 4:9, 21) 이 서신은 두기고에 의해 디모데에게 전달된 듯한다. 디모데는 이 서신을 받고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을 면회했다. 전승에는 디모데가 바울 순교 이후(A.D. 67년경), 에베소 감옥으로 지내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때 64세의 나이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진다. (90년경, Eusebius, Nicephorus) 비록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성격도 다소 소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디모데지만 그는 젊은 시절부터 아멘,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서 바울의 지시로 별도 사역과 목회를 할 정도로 바울의 신앙을 받는 신실하고 신력 있는 지도자였다.

▷시선 출처-네이버 블로그

자료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김민경 수습기자
rudvmfhelxo@gmail.com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 2019년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분야: 공모전
- 응모대상: 제한없음
- 공모일정: ~2019. 06. 21. (금)



- 2019 한국석유관리원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분야: 공모전
- 응모대상: 제한없음
- 공모일정: ~2019. 06. 14. (금)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캐릭터 공모전
- 공모분야: 공모전
- 응모대상: 제한없음
- 공모일정: ~2019. 06. 21. (금)



- 금융감독원 제8기 FSS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 모집
- 공모분야: 대외활동/서포터즈, 봉사활동
- 응모대상: 대학생/대학원생
- 공모일정: ~2019. 07. 05. (금)



- 한국소비자원 제4기 소비자안전 모니터 모집
- 공모분야: 대외활동/서포터즈, 봉사활동
- 응모대상: 일반인, 대학생/대학원생
- 공모일정: ~2019. 06. 07.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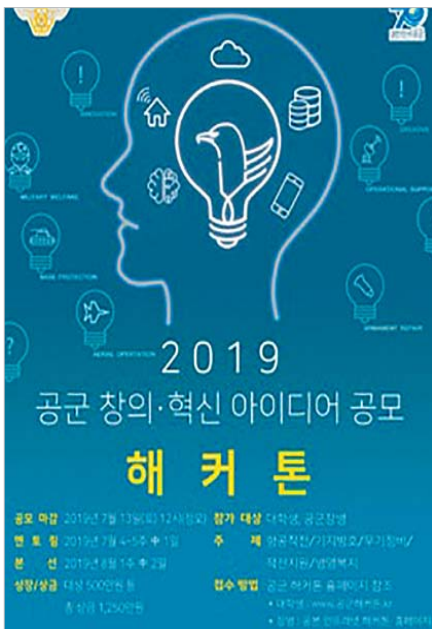
- 2019 SW 챌린지 공모전
- 공모분야: 공모전
- 응모대상: 대학생/대학원생
- 공모일정: ~2019. 06. 28. (금)



- 제6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 기술 공모전
- 공모분야: 공모전
- 응모대상: 대학생/대학원생
- 공모일정: ~2019. 07. 01. (월)



- 제1회 한강유람선 영화제 시나리오 공모전
- 공모분야: 공모전
- 응모대상: 제한없음
- 공모일정: ~2019. 06. 23. (일)



- 2019 제2회 공군 창의 혁신 아이디어 공모 해커톤
- 공모분야: 공모전
- 응모대상: 대학생/대학원생, 기타
- 공모일정: ~2019. 07. 13. (토)



- 2019 삼성 금융영양전문가 과정 12기 추가모집
- 공모분야: 대외활동
- 응모대상: 일반인, 대학생/대학원생, 기타
- 공모일정: ~2019. 06. 17. (월)



- 삼성그루 삼양 seeds 3기 모집
- 공모분야: 대외활동
- 응모대상: 대학생/대학원생
- 공모일정: ~2019. 06. 24. (월)



- 공정거래위원회 4~6컷 웹툰 공모전
- 공모분야: 공모전
- 응모대상: 대학생/대학원생
- 공모일정: ~2019. 07. 10. (수)

동서인의 센스 넘치는 N행시!

가:

람:

슬:

기:



1학기를 마무리 짓는 6월이 성큼 다가왔다. 마지막 기말고사를 앞두고 또는 종강을 앞두고 있는 동서대 학우 여러분들께 응원의 말을 전한다. ‘가람슬기’는 강처럼 푸르게, 슬기롭게라는 순우리말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강처럼 푸르게, 그리고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두들 파이팅!

예시)

가: 가장 아름다운 때를

람: 암시하는 오늘을

슬: 슬픔 속에 묻어 두지 않기를

기: 기도합니다.



- 학번, 학과, 이름, 연락처를 써서 산학협력관 대강당 입구에 있는
- 신문사 건의함에 넣거나 010-4760-3385로 연락주세요
- ※ 6월 19일까지 퍼즐에 응모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두 분에게
-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 당첨자 발표는 6월 24일에 개별 통보합니다.
-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 학 과 :
- 학 년 :
- 이 름 :
- 연 락 처 :